

인문대 사람들



• 관악산 하산 길에. 왼쪽부터 이찬조 실장, 유영려, 양은식 주임

대학에 대한 행정 직원들의 기여는 우아하게 수면 위를 미끄러져가는 백조의 두 다리가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바빠 움직이고 있음에 비유될 수 있음직 하다. 서울대학의 구성원으로는 학생과 교수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그들이 배우고 가르치며 연구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든든히 뒤를 받쳐주고 있는 이 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문대학 역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찬조 행정실장을 비롯한 23명 행정 직원들의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지난 개교 64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대학 서무 행정실의 유영려 주임이 30년 근속 표창을, 교무·학생 행정실의 양은식 주임이 2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마침 관악산 등반을 겸한 인문대 직원 워크숍이 있었던 지난 11월 5일, 이 실장과 두 주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문대에는 근속 표창을 받은 두 주임 이외에도 젊은 이정희 주임이 기획 업무를 맡아 함께 대학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그리고 30년 근속 표창자에는 인문대 교무의 변순복 선생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행정 경력 35년의 유 주임은 1980년에 전북교육위원회에서 사회대 교무행정실로 전입하면서 서울대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때는 자하연 주위도 자연 그대로여서 산딸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손안 가득히 따서 먹곤 했습니다. 주위도 새파란 잔디들로 뒤덮여 있었고요. 지금은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30년 전 서울대학교의 모습이 기억나는 분들이라면 유 주임의 회상으로 아스라한 옛 기억이 불러일으켜질 지도 모르겠다.

경력 32년 차인 양 주임은 20년 전과 달라진 서울대 모습의 하나로 이제는 외국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이는 제법 국제화된 캠퍼스 풍경을 든다. 양 주임은 90년부터 서울대에 근무하면서 교무처, 의과 대학, 본부 기획실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인문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업과에 있을 때에는 최초의 수강 신청 전산화 작업에 기여하였었다. 요즘 학생들이 그 어원을 알 것 같지 않은 ‘수강신청 초안지’가, 사실은 양 주임이 실무를 맡아 개발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강신청서 양식이었다고 보면 된다. 또 기획실에 근무하면서는 BK 21 사업 외에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평창 그린 바이오 단지과 국제 캠퍼스의 조성에도 관여 하였으니 크고 작은 서울대 변화의 산 증인인 셈이다. 한 때 3500억 예산을 다루었던 경험에 비한다면야 지금 인문대 일은 양 주임의 능력으로는 소박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능력으로 치자면 2009년 인문대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이 실장 역시 28년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한 꼼꼼한 일 처리 솜씨와 리더십이 돋보이는 ‘고수’이다. 물론 일이란 능력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속상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인문대는 교수님이나 학생들 모두 사람의 향기가 나는 곳이라 근무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이 실장은 “인문대 교수님들이 참 인간적이고 품격이 있으시다”며 “다른 대학 직원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흐뭇하다”고 한다. 이 실장은 인문대가 네 학기 째 운영하고 있는 직원 인문학 강좌 덕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많은 서울대 동료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30년 간 다섯 개 단과 대학에서 근무했던 유 주임은 인문대에 오기 전인 2005년 연구지원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진실성위원회 설립의 실무를 맡아 본 것을 보람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35년 만에 처음 시도되어 지금도 진행 중인 인문대학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2년 동안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은 보람이라고 꼽고 있기도 하다. 이 실장과 유 주임의 진두지휘로 현재 인문대 리모델링은 1, 2, 3동이 순조롭게 끝난 상태이고 신양관 앞 뜰과 실개천의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번 겨울과 내년 봄에는 5동 리모델링이, 그리고 이어서는 숙원 사업이었던 8동 재건축이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 것이지만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추진하는 일이 흐뭇할 뿐”이라고 유 주임은 말한다.

인문대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통이 원활하다고 자랑하는 세 사람은 (이 실장은 지난 워크숍에서 한 라산을 등반하며 보여 준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에 감동하였다고 전한다.), 최근 늘어난 사업으로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 (아근도 늘었다), 그리고 다른 대학과 달리 학과에 직원이 없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이 실장은 서울대 직원으로서 평의회 운영에 대해, 양 주임은 모두가 학교 구성원이라는 인식 하에 교수 및 학생과 직원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드문 데 대해, 그리고 유 주임은 행정실 직원 증원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해 각각 조금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양 주임은 현재 케냐에서 유학 온 두 서울대 학생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 교감을 중시하는 양 주임이 나설 법한 일인듯 하다. 그는 주말 봉사에 나서는 자격증을 가진 레크리에이션 강사이기도 한데, 그의 사회자로서의 실력은 이 날의 워크숍 내내 발휘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산을 찾는다는 이 실장은 등산을 하면서도 개선될 수 있는 도립공원의 시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만큼 매사에 적극적이고, “잘생긴 아들과 너무 아름다운 딸”을 둔 유 주임은 늦은 나이에든 개의치 않고 어렸을 적 꿈이었던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다. 학교 일 뿐 아니라 개인사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열정과 세심함으로 물갈퀴 달린 발과 다리의 역할을 맡아 주고 있기에 인문대라는 백조의 자태가 빛나는 것이라 생각하니 새삼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다. 세 인문대 행정실의 리더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정리 이해완)